

섬유용 분산제 수요 둔화

폴리에스터 염색산업 침체따라 ... 연간 4500톤 규모

국내 섬유용 분산제 수요 신장률이 후방산업인 섬유 염색산업의 불황으로 둔화된 반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섬유용 분산제 주수요산업인 폴리에스터용 염색가공기업들이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의 급부상으로 94년 하반기부터 수출길이 막히면서 도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0~20%정도 성장하던 국내 분산제 수요 신장률이 정체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나일론 및 실크용 수요는 대만·홍콩 등으로의 수출증가와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로 인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분산제 수요는 폴리에스터용 70%, 나일론 15%, 기타 15%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섬유용 분산제 시장규모는, 기업별로 동일제품이 농도 및 용도별 차이가 심해 정확한 집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대략 연간 4000~4500톤 정도로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이 영세해 중간 도매상들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기업으로는 동남합성을 비롯해 세기유화·대영화학·대동상사·한국정밀화학 및 삼영유화 등으로 이들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국내 수요의 30%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EOA를 생산하고 있는 동남합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한국포리올 및 일칠화학 등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특히 분산제 기초원료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EO등 대부분의 기초원료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엔화 및 마르크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분산제 가격이 10~20%정도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섬유용 분산제 내수가격은 Kg당 1300~2800원선이며 수출가격은 1.5달러선에 형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주품목은 동남합성의 R-DC, 대영화학 AC-81, 세기유화 RD-623 등인데 최근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유용 분산제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의 염색산업 발전에 따라 연 20%이상의 고신장을 구가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부진을 수출선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26>